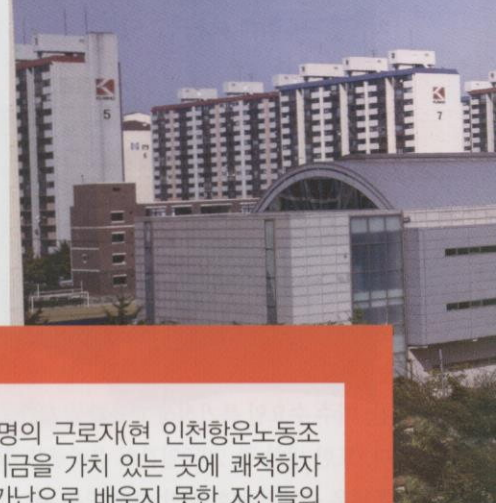


전국 100대 고교로 선정, 학업평가도 우수학교

1987년 설립된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에 위치한 인천 인항고등학교는 인천항운노동조합이 세운 사립학교이다. 그렇기에 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유정수 교장도 평교사 시절부터 23여 년을 인항고등학교의 역사와 함께 했다. 유 교장은 인항고에서 평교사, 부장, 교감의 경력을 닦고 2011년 9월 1일 교장으로 취임 되었다. 그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학교에 오랫동안 머물며 뿌리를 함께 해 왔기에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뜨겁다고 전했다. 그리고 82명의 전 교직원이 식구처럼 느껴진다고 사립학교의 특성을 밝혔다. 본교는 탄실한 기반의 장학제도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항 특별 장학생, 인항 재단 장학생, 인항 형설 장학생, 양현재 장학생, 청운 장학생, 등용문 장학생을 선발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외부 장학금 21,622,800원, 법인장학금 47,757,600원이 기탁되었다.

인항고등학교의 자라는 높은 대입진학율이다. 이미 1997학년도 입시에 무려 11명의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했으며 2005학년도 서울대 7명 합격, 2006년 서울대 5명, 포스텍 1명, 카이스트 1명 등 해마다 반가운 전보를 이어받아 2011년에는 서울대 2명, 카이스트 1명, 일본공대 1명, 유티스트 5명이란 높은 합격률의 성공을 자리매김 하였다. 최근 4년간 포스텍 합격 등락자 순위에 인항고등학교가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본교가 과학고가 아님에도 공대에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이유에는 수학, 과학 강화 프로그램의 영향인 것 같으며 유교장은 우수 중학생 유치 수리과학 포텐셜 평가 대회, 창의적인 과학 체험 프로그램, 영재학급 대비 선행학습, 수학·과학 경시대회, 수학 학습 클리닉 운영, 이공계 특수대학 입시 설명회 등의 활동을 소개했다.

1000여명의 전교생 중 삼분의 일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석권을 이어 받은 본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서 학교향상도 전국 100대 고교로 선정(동



인천항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4천여 명의 근로자(현 인천항운노동조합)들은 노조설립 후 40여 년간 모아 온 기금을 가치 있는 곳에 쾌척하는 결의를 한다. 그리고 1987년, 지난날 가난으로 배우지 못한 자신들의 한을 후대에게만은 물려주지 않겠다는 푸른 결심하에 학교를 설립한다. 이것이 노동근로자들이 세운 인문학교라는 세계역사에 전무한 의미를 안고 탄생한 인천 인항고등학교의 설립배경이다. '인천항에서 불철주야 부두노동을 하며 정성을 모아 세운 배움의 터 한줌의 흙, 한그루 나무에도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얼이 숨 쉬고 있으니' 라고 인천항운노동조합원들이 교문에 세운 기념비의 헌시는 꿈을 향해 맘껏 노를 저으라며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재촉하는 듯하다. 그러한 얼을 품고 이어져 내려온 본교는 학력 향상도 높은 학교로도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유정수 교장의 허허 웃음소리처럼 즐겁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인천 인항고등학교의 성장 노하우를 들어 보자.

## ‘인천항운노동조합’ 이 설립한 세계 유일의 인문고

### 높은 진학률의 석권이어 인천 학력 향상도 우수 고교로 선정





아일보 2011.12.02/헤럴드 경제 2011. 12.01 발표)되었고, 영어, 수학 향상도 우수 고교로 선정(동아일보, 경인일보 2011.12.02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학력향상도 순위에서 영어에 인천4등, 전국93등, 수학은 인천3등, 전국69등을 차지했음을 나타냈다. 두 개 과목이 선정된 학교는 인항고가 유일하다. 또한, 동아일보가 입시교육기관인 (주)하늘교육과 함께 전국 1579개 일반계 고교를 학력수준, 교육여건, 평판도 등 3개 부문(세부항목 11개) 중심으로 분석하여 종합 평가한 결과 인항고는 고교 종합 평가 인천 10위(동아일보 2011.11.28 발표)를 하였다. 유정수 교장은 이 모든 결과가 열정이 뜨거운 가르침 덕분이라며 모든 공을 교사들에게 돌렸다.

### 입시교육보다 인성교육을 먼저 강조

1학기 때만 해도 관심이 뜨거웠던 방과 후 학교가 학습권조례가 통과되면서 2학기에는 부진한 편이다. 겨울방학과 학년을 마치는 학생들의 마음은 허공을 떠다니기 마련이다. 이러한 레임덕을 대비하여 본교는 다른 학교보다 개학을 2개월 앞당긴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 담임선생님이 지정된 반편성표가 나왔다. 입시의 바다를 위한 항해가 시작된 것이다.

본교는 교과교실 수업 활용, 자기주도학습실인 양현재와 면학실 운영, 선택 심화 선행, 보충학습 등 우수학생 지도 프로그램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진로 진학지도에도 명문고등학교로서의 면모를 보인다.本校는 학생들의 진학의식을 고취시키고 정보화



인천 인항고등학교 유정수 교장





교직원 일동

득을 위하여 선배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진로 탐색의 날 운영, 대학 입시 제도 및 수시와 정시 전형, 대학별 고사, 입학사정관 전형 제도의 이해를 돕는 지도 등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 및 학력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 교사 토론회, 선진학교 탐방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12월 28일에는 우수 예비 신입생 학부모를 초청하여 공부방법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동아리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2000년에는 12대 골든벨이 탄생하기도 했다.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시창작 UCC경연대회와 국어와 문학·상식 퀴즈, 백일장, 논술쓰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어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 교장은 또한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심화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여 준비한 다양한 영어 교육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영어 말하기 대회와 영어 회화 캠프를 실행 중이며 특별히 영어의 날 행사를 지정하여 멘토 교사 영어 에세이 지도, 영어 퀴즈 등 대회와 이벤트가 열린다.

인향고의 교육목표를 표방하는 학생상은 진취적인 학생, 탐구하는 학생, 봉사하는 학생이다. 학교 중점 사업으로는 나눔과 봉사 정신을 강조하여 '사랑의 잔돈 모으기' 운동을 시행한 결과 매해에 이어 2010년에는 2,410,016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도 하였다. 아무리 입시의 바다를 향해해야 하는 운명이 어쩔 수 없다 해도 유정수 교장은 인성교육을 앞설 수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유 교장은 학생들의 인사말을 '안녕하십니까'에서 '효잡니다'로 바꾸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효자 되십시오'로 대답한다. 그는 조희·종래 때마다 각 교실에 훈화자료를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사와 함께 하는 인향 리더십 훈련으로 사제동행 한마음 걷기대회를 무박 2일로 체험하기도 했다. 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4.19혁명, 11.3 학

생의 날 기념 훈화 방송, 퀴즈 대회, 사행시 짓기 등 역사의 날 행사도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마일리지 제도로 학생들의 생활지도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역동적인 문화를 위하여 축구대회나 예술제 등을 빠뜨리지 않는다.

특히 동아리활동은 매우 활성화되었으며 선후배 간의 질서와 우정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장으로 마련되기도 한다. 유 교장은 동문회의 활동도 자랑으로 꼽았는데 그들은 인향컵 I-리그 축구대회를 후원하며 장학금도 쾌척하는 등 재학생 축구를 통해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교장 입석 하에 매해 송년회를 열어 끈끈한 애교의식을 고양시켜 나가고 있다고 한다.

올해에도 2학년 학생이 카이스트에 조기 입학했다. 한 학생의 우수한 실력을 만든 장본인은 꼭 한 사람이 아니라 교사모두가 열정을 쏟아 부었던 '인화(人和)'였음을 밝히는 김만희 학력관리부장과 모든 공을 교사들의 열정에 돌리는 유정수 교장의 '등고자비(登高自卑)'의 모습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노하우라는 결론을 내려 본다. \*

취재 | 김수미 기자



학부모(예술제 찬조 작품전)